

# ‘광주의 맛’ 세계를 잡는다...광주식품대전 내일 개막

광주의 ‘맛’을 하나의 브랜드 자산으로 구축해 세계시장으로 연결하는 호남 최대 규모 식품축제가 선보인다.

광주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나흘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식품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산업적 도약을 이끄는 ‘2026 광주식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1회째를 맞는 광주식품대전은 300여개 기업이 400여개 부스를 가득 채우며, 지역 식품의 우수성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올해 식품대전은 호남 식품산업의 세계 시장 도약을 위해 비즈니스를 대폭 강화했다.

국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실질적 판로를 지원하는 유통·구매 상담하는 물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규모를 지난

24일까지 김대중센터...창억떡·궁전제과 등 300개사 참여 해외바이어 52명 초청 역대 최대...식품산업 세계 영토 확장 빵규레이션·로스터리 카페 등 최신 식음료 경향 ‘한 눈에’

해 24명에서 올해 52명으로 2배 이상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 우수 식품기업들이 내수 진작을 넘어 세계 무대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견고한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시관 구성을 살펴보면 대형 식품기업과 지역 대표 브랜드의 조화가 돋보인다.

농심, 하이프진로 등 국내 대표 대기업과 함께 창억떡, 궁전제과, 베비에르, 브레드세븐 등 광주를 상징하는 향토 브랜드들

이 대거 참여해 관람객들의 오감을 자극할 풍성한 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전시장 내에서 실시간 소통 판매(라이브커머스)를 송출해 현장의 활기를 온라인 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킬 계획이다.

최신 식음료(F&B) 산업 경향을 반영해 지역 브랜드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특별관도 눈길을 끈다.

지역 유명 인플루언서 ‘슈가토끼’가 엄



지난해 열린 광주식품대전 모습.

사진제공=광주시청

선한 ‘빵·디저트 큐레이션’존을 비롯해 (F&B) 산업의 전국화를 꾀하는 ‘광주전 광주의 합한 커피문화를 만날 수 있는 ‘로 스토리 카페 콜렉티브’존, 지역 식품음료

이밖에 광주와 대구의 상생과 연대를 담은 ‘달빛동맹관’, ‘광주전남 미식특별관’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미래 식품 경향을 조망한다.

이밖에 광주와 대구의 상생과 연대를 담은 ‘달빛동맹관’, ‘광주전남 미식특별관’ 등을 통해 지역 간 교류와 미래 식품 경향을 조망한다.

아울러 전시장 안팎에서 펼쳐지는 ‘광주 셰프챌린지’, ‘전국 초밥왕 인 코리아’, ‘친환경 케이푸드(K-FOOD) 창업요리대전’ 등 다채로운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축제의 열기를 더할 전망이다.

오영길 시 경제창업국장은 “올해 박람회에는 산업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광주의 맛과 멋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종합 미식축제가 될 것”이라며 “식품산업의 지속할 수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 바다 나가기 전 ‘수산업정책보험’ 챙기세요

전남도, 어업인 안전 위해 ‘90세까지·모든 어선’ 확대 중등정세 장기화 따라 보험료 납입 기한도 한시 연장

전남도는 어업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어선원과 어업인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업정책보험 가입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수산업정책보험은 △어업자업으로 발생하는 상해·유류장해 등을 보장하는 어업인 안전보험 △어선의 침몰, 파손

등 해상사고 피해를 보전하는 어선 재해보험 △조업 중 어선원의 인적 재해를 보장하는 어선원 재해보험 등으로 구성됐다.

어업인 안전보험은 올해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15~87세에서 15~90세로 확대, 지원 대상을 넓혔다.

어선 재해보험은 2023년 7월부터 10톤 미만 어선에 한해 지원하던 보험료를 모든 어선으로 확대했다.

어선원 재해보험은 지난해 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어선 톤급별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을 낮췄다.

3t 미만 자부담 비율 20%에서 12%로, 3~5t 미만 20%에서 15%로, 5~10t 미만 22%에서 17%로 각각 인하해 올해도 소규모 어업인의 부담이 한층 완화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또한 중등정세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으로 어업 경영비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어선원과 어선 보험료 납입 기한도 한시적으로 연장됐다.

연장을 희망하는 보험 가입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보험을 최초 가입한 수협 회원조합이나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과 각종 재해로 어업인의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안전망은 더욱 촘촘히 해 어업인이 안심하고 조업에 전념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평동농협, 농작업 대행사업 모내기 시연

올해 총 200여 농가 75ha 대상

광주 평동농협은 최근 광주 광산구 용곡동 일대에서 ‘농작업 대행사업 첫 모내기 시연회’를 열고 본격적인 영농 지원 활동에 돌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시연회에는 이철호 농협 광주본부장,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평동농협 임직원과 조합원, 지역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이양기를 활용한 모내기 작업 시연이 진행돼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평동농협은 올해 지역 내 200여 농가, 75ha 규모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들이 주문한 3만여장의 모에 대해 육묘상처리제를 지원하고, 권역별 적기 모내기를 통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다.



최삼규 평동농협 조합장은 “이번 시연회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농작업 대행사업을 확대하고 농업의 기계화·스마트화를 적극 도입해 조합원들의 영농 편의와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협, 전기차 충전 브랜드 ‘NH Charge’ 이벤트

1만원 이상 이용시 추첨 통해 쌀 10kg 증정

농협경제지주는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다음달 19일까지 농협 전기차 충전소 브랜드 ‘NH Charge’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신규 가입 고객과 기존 이용 고객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신규 회원의 경우 이벤트 기간 동안 1만원 이상 충전하면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우리쌀 10kg을 증정한다.

기존 회원들을 위한 혜택도 마련됐다. 충전 금액 상위 108명에게는 사용 실적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NH포인트를 차등 지급하며, 누적 충전 금액이 가장 높은 고객에게는 50만 NH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양 대표이사는 “전기차 100만대 시대를 맞았지만 농촌지역 충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NH Charge는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기반으로 농촌지역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농협 전남본부는 19일 화순군 이서면 한 육묘장에서 농번기 농업인들을 위한 ‘농심(農心)을 달래는 따뜻한 새참 한 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 전남도, 대파 산지 수입안정보험 가입 당부

영광·진도·신안 농업인 대상

내달 19일까지 농축협 접수

보험료 최대 85% 지원

가격 하락하면 수입 보상

전남도는 농가 소득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안정적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농업수입안정보험’의 대파 품목 가입 신청을 오는 6월 19일까지 지역 농·축협에서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농업수입안정보험은 자연재해 등에 따른 수확량 감소와 시장가격 하락으로 보험 가입연도의 수입이 과거 평균 수입의 일정 수준 이하로 감소하면 이를 보상하는 제도다.

현재 가입 대상은 총 20개 품목이다. 콩, 마늘, 양파 등 14개 품목은 전국 단위로 운영되며, 배, 대파 등 6개 품목은 일부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되고 있다.

대파 품목은 시범사업으로 추진되며 영광, 진도, 신안지역 농업인을 대상으로 가입 신청을 받는다. 보험료의 85%는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되며, 농업인은 15%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농업수입안정보험은 기존 농작물재해보험과 일부 보장 범위가 중복돼 중복 가입은 불가하다.

따라서 농업인은 두 보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가입해야 한다. 특히 시장가격 하락에 따른 수입 감소 보장을 바라던다면 농업수입안정보험이 보다 적합하다.

정원진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재해와 가격 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줄이는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품목별 접수 기간을 확인해 빠짐 없이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전남농협, 화순서 ‘따뜻한 새참 한 끼’ 행사

농업인 100여명에 열무국수·제육볶음 나눔

농협 전남본부는 19일 화순군 이서면 한 육묘장에서 농번기 농업인들을 위한 ‘농심(農心)을 달래는 따뜻한 새참 한 끼’ 나눔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농협 화순군지부와 화순농협, 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 회원 등 50여명이 참여했으며, 지역 농민 조합원 100여명에게 새참과 음식을 제공했다.

행사는 단순한 일회성 기부를 넘어 지역 여성조직인 고주모 회원들이 직접 현장에서 열무국수와 도토리묵무침, 제육볶음 등 계절 음식을 조리하고, 참석 내빈들이 농업인들에게 배식까지 함께하는 참여형 사회공헌 방식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는 화순군의원과 군청 관계자들 비롯해 조준성, 김은경, 최우영 등

이 참석해 농업인들과 식사를 함께하며 영농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은 “농번기에는 바쁜 일손 탓에 제대 식사조차 어려운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고주모 회원들의 정성이 담긴 새참이 육묘를 전담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농업인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화순에서 시작된 따뜻한 나눔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위안이 되고 지역사회에는 상생의 가치를 전하는 계기가 됐다”며 “전남농협과 이양정농협 등 지역 농협의 행사를 확대해 농심전심 운동이 전국적인 캠페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 ‘농촌공간계획’ 주제 쇼트폼 공모전

농어촌공사, 7월 24일까지 접수...10편 선정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최하고 공사와 한국농촌계획학회(학회장 신지훈)가 주관하는 ‘농촌공간계획 쇼트폼 공모전’ 출품작 접수를 시작했다

이전 공모전은 농촌공간계획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농촌공간 계획에 관심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모전에 응모할 수 있다. 개인 또는 3명 이내 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30초 이상 60초 이내 분량의 영상에 농촌공간계획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담아 제출하면 된다. 영상 제작에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할 수 있고, 순수 창작물이라면 표현 형식에 제한은 없다.

접수 기간은 7월 24일 오후 6시까지다. 참가자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시 한 뒤, 소문24 누리집과 한국농어촌공사 누리집 공고문에 안내된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와 공사는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투표 등을 거쳐 9월 중 최종 수상작 10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대상 1편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과 상금 300만 원을 수여하고, 최우수상 2편, 우수상 3편, 장려상 4편도 각각 선정해 상장과 상금을 수여한다.

선정된 작품은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계획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되며, SNS를 통해 공개돼 농촌공간계획을 알리는 홍보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